

[오피니언]

다산포럼

송재소



적어도 50세 이상의 사람들은 고등학교 국어 교과서에 실렸던 안톤 시나크의 '우리를 슬프게 하는 것들'이란 글을 읽었을 것이다. 거기에 이런 대목이 있다. "동물원에 잠깐 범의 불안, 초조가 또한 우리를 슬프게 한다. 철책 가를 그는 언제 보아도 왔다 갔다 한다. 그의 빛나는 눈, 그의 무서운 분노, 그의 괴로운 부르짖음, 그의 앞발의 한없는 절망, 그의 미친 듯한 순환, 이것이 우리를 말할 수 없이 슬프게 한다." 맹수 분래의 아성(野性)을 거세당한 채 철책 속에서 인간에게 사육 당하는 호랑이의 모습이 그에게 슬픔을 자아내게 한 것이다.

그러나 2008년 5월,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소들과 산채로 매장 당하는 닭과 오리들이 철책 속에 간힌 호랑이보다 우리를 더 슬프게 한다. 지금 세계는 인간 광우병과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와의 공포에 떨고 있다. 따지고 보면 이러한 '인수(人獸) 공통 전염병'은 인간 스스로가 초래한 재앙이 아닌가.

풀만 먹고 사는 소에게 성장을 촉진시키기 위해 동물성 사료를 먹였으니 소가 온전할 리 없다. 더구나 소에게 소의 빠지 같아서 먹었으니 그 소가 미치지 않고 어찌겠는가. 헛고 밀폐된 공간에 꿈쩍 못

우리를 슬프게 하는 것들

하게 가두어 놓고 사육하는 닭과 오리도 면역력이 떨어져 바이러스의 침입에 무참히 무너지는 것이다.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이익을 내기 위한 이러한 '광장령' 가축 사육 방식이 우리를 슬프게 한다. 공산품이 아닌 닭과 오리를 공장형으로 사육한 죄에 대한 대가는 인간이 지금 받고 있다. 본성을 억압당한 채 부당한 대우를 받아온 소와 닭, 오리들이 이제 인간에게 무서운 보복을 계획했다고 생각한다면 좀 지나친 환상일까?

인간 광우병에 감염될지도 모를 미국산

쇠고기를 충분한 검토 없이 수입하기로 한 정부의 처사는 우리를 슬프게 한다. 위험성이 높은 30개월 이상 된 소의 고기도 수입하고 광우병 유발 물질로 알려진 뼈와 골수까지 수입으로 한 결정은 국민의 분노를 사기에 충분하다. 게다가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해도 한국 정부 단독으로는 수입 중단을 결정할 수 없다는 협약은 이른바 '검역 주권'을 포기했다는 비난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이제 우리도 값싸고 품질 좋은 쇠고기를 먹을 수 있게 되었다"고 생색을 내는

만 지금 시민들은 정부의 처사에 분노하고 있다. 정부에서 결정하면 국민들이 따르리라고 여긴 오만한 자세가 우리를 슬프게 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와 국민의 관계는 대기업 CEO와 부하 직원들과의 관계와 다르다. 역사상 어디에 국민을 이기는 정부가 있었던가? 사태의 심각성을 뒤늦게 파악한 정부가 특단의 대책을 낸다고 하니 기다려 볼 때이다.

2008년 5월의 이 땅에는 우리를 슬프게 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다. 치솟는 기름값 때문에 면취선 화물차와 출어(出漁)를 포기하고 항구에 정박해 있는 선선들이 우리를 슬프게 하고, 스위스 국제경쟁개발원의 '2008년 세계경쟁력 보고서'에서 조사대상 55개국 중 한국의 생활비 물가가 1위를 차지했다는 신문보도가 또한 우리를 슬프게 하고, 계절의 여왕인 5월의 하늘을 누렇게 물들인 황사도 우리를 슬프게 한다.

그러나 이보다 미국, 자기들은 먹지 않고 버리는 소의 내장과 뼈까지 강제로 팔아버리는 미국의 행위와 이에 굽복한 우리의 처지가 우리를 더 슬프게 한다.

〈성균관대 교수〉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써주세요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전화 062-2200-628/팩스 062-222-4918/e메일 opinion@kwangju.co.kr

NGO 칼럼

김광훈



"특단의 대책이 수립되지 않을 경우 금세기 안에 지구 표면 온도가 섭씨 1.8~4.0도 상승하고 해수면은 최대 59cm 까지 높아져 인류에 재앙과도 같은 위기가 닥친다"(2007년 기후변화 정부간 위원회·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제4차 보고서)

지난 1992년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기후변화협약이 체결됐다. 이를 구체화 한 교토의정서가 2005년 2월 16일 발효되면서 온실가스 감축이 국제적 이슈가 됐다. 우리는 지구환경보전이라는 국제적 합의에도 동의했다. 따라서 국가 사

자동차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쉬거나, 자동차가 넘쳐나는 세상이다.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자가용 사용을 절반만 줄여도 온실가스 1.5t 이상 줄일 수 있다.

근거리는 걸어가거나 자전거를 타고 대중교통을 이용해 이동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또 차량 5부제에 적극 참여하고 승용차 함께 타기 운동인 '카풀'을 해야 한다.

집안에서 새는 에너지도 잡아보자. '에어컨 1대는 선풍기 30대의 전력소비량과 같다'는 실험결과가 있다. 전기

우리가 북극 얼음을 녹이고 있다

회·경제 발전을 이를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에너지 체계로 나아가는 총체적 기후변화 대응책이 필요하다.

최근 중국, 인도 등이 본격적인 경제 성장궤도에 진입하면서 에너지 사용량이 급증하고 있다. 이는 국제유가 상승으로 이어졌다. 지난 2003년 경유가격은 1 달 780원이었으나 올 들어 5월 말 현재 1 달 1천821원으로 130% 상승했다. 최근 정부는 이 같은 유가 상승에 따라 기름값 인상은 물론 공공요금도 올리겠다고 밝혔다.

에너지 절약을 통해 경제와 환경 등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할 때이다. 광주는 에너지 사용량이 공장 등 산업시설보단 상업시설을 비롯한 가정과 수송 분야의 사용량이 더 많다. 그렇다면 일상 생활 속에서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는 에너지 절약법은 없을까. 몇 가지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광주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소모량이 많은 에어컨 대신 부채와 선풍기로 여름나기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또 냉장고 안에 있는 불필요한 음식은 바로 없애고 문을 자주 열지 않은 것도 지구환경을 지키는 좋은 습관이다.

특히 절전형 멀티탭 사용으로 불필요한 전기사용을 줄여야 한다. 가정 내에서 세탁기나 전자레인지, 휴대전화 충전기 등 사용하지 않는 가전제품 플러그를 뽑을 경우 한 달 평균 약 10%의 전기요금을 줄일 수 있다. 올 여름에는 실내온도도 26도~28도를 유지하고 자가용 보단 자전거를 타고 시장에 가는 모습을 자주 봤으면 한다.

에너지 절감은 가정 경제 뿐 아니라 환경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환경은 우리 모두의 것이다. 결코 '구우일모' (九牛一毛) 식이어서는 안 된다.

만일 소풍이나 체험학습 장소로 동물원이 계획된다면 선생님 중 한두 분 정도는 동물원은 어떤 곳이고 동물원에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사전교육이 필

동물원 에티켓



우리 나라 교육 문제는 동물원에서도 여실히 드러난다. 몇 군데 다녀본 외국 동물원에서는 초·중·고 학생들이 나란히 관람하면서 부인가 열심히 기록하며 조용히 다닌다. 그런데 우리 나라 동물원에서 학생들의 모습은 요란하고, 시끄럽고, 쓰레기와 아무 곳에 버리고, 도대체 기초 질서라고는 찾아 볼 수가 없다.

100명 가운데 한두 명 정도 진지한 학생들도 보기는 한다. 아마도 그들이 나중에 우리 나라 생태문화를 지켜갈 후보들일 것이다. 그렇다고 나머지 학생들은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것은 절대 아니다.

만일 소풍이나 체험학습 장소로 동물원이 계획된다면 선생님 중 한두 분 정도는 동물원은 어떤 곳이고 동물원에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사전교육이 필

요하지 않을까. 선생님이 교육하기 어렵다면 동물원에 자문이라고 구해야 되지 않을까. 함께 생태활동 하는 교사들도 있지만 그분들조차 미친가지인 것을 보면 안타깝다. 교육은 아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를 실천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이다.

교育이 안 된 학생들은 동물원에 오면 주로 하는 행동이 동물들에게 둘 데 디자인, 초식동물들에게 과자 봉지 주기 (초식동물들은 과자 봉지를 그대로 삼킨다), 원숭이에게 담뱃불을 붙여주기...

여기며 최근에 새로 개발한 행동 중 하나가 원숭이에게 라이터 주기다. 만약 이 장난꾸러기 원숭이가 세개 깨물어서 가스 라이터가 입안에서 폭발이라도 한다면... ◇ 최종욱

광주우치동물원 수의사 lovnat@hanmail.net

현충일에 국립묘지·총열탑을 찾자

6월은 호국보훈의 달이고 6월6일은 52주년 현충일이다. 이 날은 조국을 위해 헌신한 순국선열과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장렬하게 산화한 전몰장병의 영령을 추모하는 날이다. 오늘날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은 이들 호국용사들의 거룩한 희생과 애국애족심이 있었기 때문이다.

해마다 6월 호국보훈의 달이 다가오면 각 계각층에서 보훈가족을 위로하는 격려행사가 열린다. 하지만 대부분이 의례적이고 형식적으로 진행되어 오히려 그들에게 상처가 되기도 한다.

▲우도형·광주시 광산구 송정1동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등 어떤 내용의 원고나 사진, 만화, 만평도 환영합니다. 채택된 원고는 고교 지급합니다.

선물용 쇠고기에도 원산지 표시 의무화해야

예전에 개인적으로 도움을 받은 분이 있다. 그 분께 쇠고기를 선물하기 위해 대형 할인마트에 갔더니 한우와 수입고기가 함께 포장돼 팔리고 있었다. 한우는 부위별로 18만원에서 25만원까지 있었고, 수입육은 9만원에서 15만원정도까지 였다.

그런데 매장 직원이 필자에게 깊이 부담스러우면 수입고기도 괜찮으니 그것을 선물하라고 권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수입육을 보내도 받는 사람에게 수입육이라는 표시를 하지 않으니 염려 말라"는 것이다.

요즘 수입육은 질기지도 않고 품질도 괜찮다는 말까지 덧붙였다.

이 같은 말을 듣고 필자는 너무 화가 났다. 장사하는 사람들의 상술이야 뭐라고 시

비 걸 일은 아니다.

하지만 수입육을 선물해도 따로 표시하지 않으니 염려 말라는 말은 듣기 거슬렸다. 그것을 받는 사람은 그 수입육을 한우인 것으로 알고 있을 것이고 고기맛이 떨어질 경우 한우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것이다.

앞으로 대형마트에서 선물로 포장해 나가는 소고기도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했으면 한다. 더군다나 요즘 미국산 소고기 수입 때문에 온 국민이 쇄불시위까지 하는데 선물로 나가는 수입육 소고기에 어느 나라 고기인지 표시를 하지 않고 파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김석원·광주시 광산구 안청동

시설

새 정부 100일 국정운영 틀부터 바꿔야

오늘로 출범 100일을 맞은 이명박 정부를 접하는 심정이 착잡하다. 국정은 반정부 시위로 번지고 있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촉불시위에서 드러나듯 온통 난맥상이다. 지난 100일의 '성적표'는 낙제점이나 다른 없다. 어쩌다 이 지경이 되었는지 안타깝다.

새 정부는 실용주의를 내세웠지만 아미주에 정권의 한계를 드러내며 민심의 반발을 초래했다. 최우선 국정과제라는 경제 살리기와 국민통합은 어디에서도 성과를 찾아볼 수 없다. 경제는 고물가와 성장률 둔화 등 갈수록 악화되고 있고 사회적 갈등과 대립도 확산되고 있다.

국론 분열은 매우 심각하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과 처리, 대운하 건설, 북한 문제, 혁신도시 축조, 공공기관 민영화 등 극작위한 사업을 추진해온 정부의 낙곡을 타개할 수 없다. '진단'이 정확해야 올바른 '처방'이 나올 수 있다. 국정운영의 기본틀은 재정비하고 국민의 마음을 진정으로 헤아린 쇄신책을 내놓길 기대한다.

광주·전남 온실가스 감축 운동 기대된다

광주·전남지역 자체체가 최근 잇따라 의미 있는 협약을 체결했다. 광주시와 여수시가 지난 4월과 지난달 31일 각각 환경부와 '기후변화대응 시범도시'로 조성하기 위해 상호 협력한다는 협약을 맺은 것이다. 지역 자체체들이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온실가스 감축을 더 이상 방지할 수 없다는 것을 환기시켜준 사례라는 점에서 환영할 만하다.

여수시는 이번 협약에서 여수세계박람회 개최되는 올해 2012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당초 예상량 2천592만t의 10%를 감축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여수국가산단지를 저탄소산업단지로 조성하고 세계박람회장 주요 전시관을 '이산화탄소 배출량' 세계 10위, 1인당 배출량은 세계 6위를 기록하고 있다. 어떻게든 대비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어떤 재앙을 맞을지 모른다.

기후변화는 반드시 넘어야 하는 미래의 과도다. 기후변화로부터 생존되는 변화의 물결에 적응하지 못하는 국가와 지역은 경쟁력에서 뒤질 수밖에 없다. 광주와 여수의 기후변화대응 시범도시 도시로 조성하겠다는 것이다.

여수시가 앞서 지난 4월 2015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10% 감축하기로 한 광주시는 탄소은행 사업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다.

無等鼓

전 국민적 저항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조건 고시를 끝내 강행했다. 야 3당은 장외투쟁에 나서고 시민단체와 노동계, 학생 등도 전면 투쟁을 벌이고 있다. 그동안 서울 중심으로 이루어진 '광우방 쇠고기 수입 반대 촉불집회'도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미국과의 추가 협상을 통해 상당히 업그레이드된 수입조건을 고시했다고 호언장담하고 있다. 그러나 안전성에 대한 국민들의 의구심과 정부의 밀어붙이기식 정책 강행에 대한 국민적 반감은 오히려 커진 듯하다.

지난달 30일을 기점으로 18대 국회가 임기를 시작했으나 쇠고기 문제로 인해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원구성은 물론 시급한 현안 처리가 미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명박 정부 출범 100일, 하루도 시끄러운 날이 없었다는 말이 나올 정도이니 앞으로 더욱 걱정이다. 특히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실제 유통되는 과정에서 또 얼마나 많은 문제가 불거질까 우려도 앞선다.

기, 가축분뇨 자원화, 축산환경개선제 공급 등 환경개선사업에도 1천436억원을 쓰기로 했다.

녹색 축산의 실천으로 깨끗하고 안전한 축산물을 생산하는 것만이 시장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 바람직한 구상이 아닐 수 없다.

/김우성 정치부장 wskim@kwangju.co.kr

光州日報

회장 許宰皓 시장·발행·편집·인쇄인 金禪榮 논설실장 金東永 편집국장 申港樂

1952년 4월 20일 创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 1(일간) 501-711-220-2(우편번호 501-711)

대표전화 2200-551-222-8111(지사·시국·구독신청·배달안내) www.kwangju.co.kr

편집국내부 사 회 2 부 2200-619 (F A X 227-0118)

면 접 부 2200-629 문화생활부